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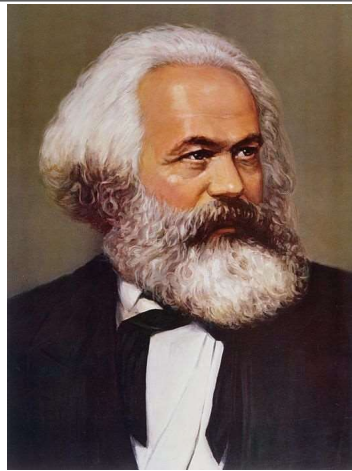
## 제 25 장

### 갈등이론

#### 학습목표

1. 갈등이론의 사회관과 기본 가정을 이해한다.
2. 갈등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해한다.
3. 갈등이론의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4. 갈등이론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한다.

Karl Heinrich Marx  
(1818 - 1883)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사회의 질서, 안정, 합의 등을 강조하는 구조 기능주의이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거시적 사회학 이론이다. 갈등이론에서는 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증시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재화와 권력 등의 자원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 투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사회의 유한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승리한 지배집단은 높은 권력, 자원, 경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집단을 억압하고 강제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가치는 사회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배집단의 억압과 강제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결국 지배집단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사회는 계속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갈등이론에서는 사회 속에는 무질서와 변동, 불평등과

불공평, 갈등과 대립이 늘 존재하는 곳이며 그러한 갈등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기제가 있다(강정한 외, 2013)고 보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그러므로 갈등이론은 사회 안정을 설명하는 데는 취약점이 있지만,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강점이 있는 이론이다.

갈등이론은 학문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historical materialism),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 현존 사회체계에 대한 비판적 자세, 혁명과 개혁과 같은 정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그리고 계급갈등, 상충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의 권력 차이에 관심을 두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학이론이다.

Ralf Dahrendorf(1929 - 2009)



갈등이론은 사회를 개인간 및 집단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보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갈등이론에는 통일된 관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데올로기나 사회갈등에 대해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갈등이론은 계급갈등을 모든 사회집단의 갈등의 원천으로 보는 갈등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Karl Marx와 계급과 권력 및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집단간의 갈등을 중시하는 Max Weber의 이론과 사상에 그 지적 뿌리를 두고 있다. 갈등이론의 기능이론에 대한 도전과 비판적 관점은 신마르크스주의자(Neo-Marxist)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Ralf Dahrendorf의 변증법적 갈등론과 Georg Simmel과 Lewis A. Coser의 기능적 갈등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갈등이론은 비판

이론, 페미니즘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이론, 후기구조주의이론, 탈식민주의이론, 퀴어이론(Queer theory), 세계체계이론, 인종갈등이론 등의 발전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 1. 사회관과 기본 가정

###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갈등이론에서는 사회의 본질적 특성은 안정과 협력이 아니라 경쟁과 착취, 갈등과 투쟁이며, 사회집단이나 계급간의 갈등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계급 또는 사회집단간의 투쟁의 장(場)이며,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사회생활은 제한된 자원과 권력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착취 그 자체라고 본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가 우열의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과 사회집단의 통합체로서, 합의된 목표 아래서 상호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 집단이라고 본다. 반면에 갈등이론은 사회의 본질을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본다. 갈등이론에서는 사회성원은 경제적 부(富), 명예, 권력, 지위 등의 사회적 희소 가치와 자원을 열망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므로,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경제제도는 사회집단이나 계급간의 투쟁의 도구이며, 불평등을 유지하고 지배계급의 지배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모든 사회구조에는 권력의 불평등이 내재해 있으므로, 특정한 개인과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 사회구조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개인

과 집단 즉 지배계급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과 자원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제, 착취, 통제한다. 이때 지배계급은 계급구조 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지배계급의 착취나 억압 행위를 피지배계급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유지하고 더욱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행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사회 내에 불평등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더욱 공고화되어 간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역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중 또는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자 그 결과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구조는 사회체제와 개인이 온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의 불평등구조 즉, 사회계급 또는 집단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적응이 아니라 사회계급간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계급간의 갈등은 긍정적 사회변화의 필수적 과정이며, 권력관계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혁신적이라기 보다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Marx는 인간 소외를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유재산제 철폐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Marx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은 인간 사회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인간 존재는 개인 속에 내재한 추상적 현상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의 총체(ensemble)라고 본다(박종대, 1994). 그러므로 Marx는 개인의 행동은 권력과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사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행동방식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집단과의 갈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사회구조에는

권력과 자원배분의 불평등이 내재해 있으므로,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금전, 토지, 상품 등의 한정된 물질적 자원을 놓고 지속적 경쟁을 한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적 자원을 놓고 경쟁할 뿐 아니라 여가시간, 사회적 지위, 성적 파트너 등의 비물질적 자원을 놓고도 경쟁한다.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 어떤 개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 사회구조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개인은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Marx와 달리 Weber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적 행위의 수행자라고 본다(이수안, 2015). Weber는 인간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고, 주체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이며, 이성 능력과 공감 및 감정이입 능력을 통해 타인의 행위에 내재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Weber는 인간 행동이 사회적 관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Marx는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labouring being)로 규정한다(이태건, 2000). 즉, Marx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 노동력(labour power)이고, 인간의 기본적 모습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하는 모습이다. 인간은 노동력을 자연적 대상에 투입하여 자신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존을 이어가고 이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해 나간다. 하지만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노동의 불평등한 분업에 기초한 착취와 억압은 인간의 잠재성 또는 창의적 능력의 발현을 막기 때문에 인간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병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 2) 기본 가정

갈등이론에서는 사회를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개인과 집단간의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 보며, 이로 인해 형성된 사회의 불평등구조의 변화 역시 경쟁과 갈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갈등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Turner, 1984; 강정환, 2013; 지은구 외, 2015; 이철우, 2017a).

### < 표 25-1 >      갈등이론의 기본가정

-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의 제한된 자원과 권력은 일반적으로 강압에 의해 비합법적이고 불공평하게 분배되며,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지는 과업과 보상은 불공정하게 배분된다.
- 사회의 제한된 자원과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계급 또는 사회집단간의 경쟁, 투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 사회의 제한된 자원과 권력이 불공평하게 분배될수록 계급 또는 사회집단간의 이해갈등은 더욱 커진다.
- 사회적 가치는 사회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질서는 지배계급의 억압과 강제에 의해 형성되므로, 국가는 가장 힘 있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 사회의 지배계급은 계급구조 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지배계급의 착취를 피지배계급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 사회성원과 집단이 서로 다른 욕구와 가치, 사상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회갈등이 발생한다.
- 지배집단은 높은 권력과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집단을 억압하고 강제한다.
- 계급구조는 사회체제와 개인의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
- 사회의 불평등구조에는 지배계급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사회 집단

간의 갈등, 경쟁, 억압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 갈등은 변증법적이다. 즉, 한 갈등의 해결은 또 다른 갈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또 다른 갈등으로 발전해간다.
- 사회 속의 갈등과 대립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 개혁을 일으킨다.
- 소외된 피지배집단이 자신의 욕구충족과 자원획득을 위한 사회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가져야 한다.
- 인간 사회의 역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시도의 결과이다.

## 2. 주요개념

갈등이론에는 Marx와 Weber의 갈등이론뿐 아니라 Darendorf의 변증법적 갈등이론, Coser의 기능적 갈등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계급구조와 계급갈등

Marx의 계급갈등론에서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계급(cla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계급은 ‘경제적 자원 보유 기준에서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계급은 경제적 요소에 따라 집단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한 것으로, 특정 계급의 성원은 다른 계급의 성원과 구분되는 특성과 공통의 경험을 가지며, 동일 계급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 즉 귀속의식을 강하게 가진다. 사회계급은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유산계급(有産階級) 또는 자본가계급인 부르주아(bourgeois)와 무산계급(無産階級) 또는 노동자계급인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로 구분된다.

부르주아는 프랑스어로 ‘성(城)’을 뜻하는 ‘bourg’에서 유래한

된 것으로, 부(富)를 축적한 계급은 안전한 성안에서 살고 그렇지 못한 계급은 위험하고 척박한 성 밖에서 생활하는데서 생긴 용어이다. 부르주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부르주아지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했으며, 수많은 자유 대신에 단 하나의 자유 즉 상거래의 자유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부르주아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불공정한 착취를 행하고, 정치적 권력을 오용하여 지배하는 사회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는 고대 로마 시대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유민을 뜻하는 라틴어 'proletari'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자본을 소유하지 않아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노동자는 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의 급여나 자신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처럼 Marx는 노동자가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노동만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외에 프티 부르주아지(petite bourgeoisie)와 룸펜프롤레타리아가 있다. 프티 부르주아지라 불리는 소시민(小市民)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중간 계급인 중소자본가계급이다. 이들은 부르주아는 아니지만 부르주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들 역시 부르주아에게 고용되어 살아가거나 흡수통합당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룸펜프롤레타리아(lumpenproletariat)는 독일어 'Lumpen'에서 온 말로서 남루하고 초라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랑자나 실업자의 행색이 대개는 남루하고 초라한 데서 유래되었다. Marx는 룸펜프롤레타리아(lumpenproletariat)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상적 일용직 노동에 관여하는 최하층 노동자이



면서 반동적 음모에 가담하는 계급이라 하였으며, 유랑무산계급(流浪無產階級)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약칭하여 롬펜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부랑인이나 실업자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롬펜은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혁명적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부르주아에 매수되어 반동적인 음모의 도구 노릇을 하는 경향이 있어, Marx는 사회의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다.

자본주제제하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착취와 지배, 갈등과 대립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소비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창출한 가치를 대부분 소유하기 때문에 부유해지고, 프롤레타리아는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Marx는 사회적 소수인 부르주아가 사회적 다수인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즉, 두 계급간의 관계를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자원과 권력을 소유한 결과로서 사회의 다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피라미드 관계로 설명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를 소유한 부르주아는 자신의 사적인 부를 지키고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강력한 국가기구를 갖추으로써 무력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를 얻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고 통제한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는 삶의 고난으로 인해 부르주아와는 다른 의식을 갖게 되고, 자본분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자각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적 계급을 폐지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부르주아와의 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Marx는 지금까지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사회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항상 서로 반대편에 서서 경쟁하고 싸웠으며,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전체 사회가 혁명적으로 재구성되거나 아니면 공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다. Marx는 지배계급이

계급 관계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지배계급의 착취를 프롤레타리아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Marx는 프롤레타리아가 자신들이 부르주아와 자본주의체제에 반대하는 계급이라는 계급 의식을 갖고,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x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사이의 계급갈등과 계급투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보이고 있다. 부르주아는 세계 시장을 배경으로 한 공업과 상업, 교통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을 크게 증식하고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력을 쟁취하게 되었으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통해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쥐게 되었다. 반면에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즉, 임금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다. 이에 더하여 기계와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단순화되고 노동의 양은 증가하였지만 그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는 겨우 생활이 가능한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이에 프롤레타리아는 직접 자신들을 고용하여 착취하고 있는 부르주아 고용주의 억압과 착취를 자각하고 대항하여 개별적 투쟁을 전개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점차 같은 처지에 놓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주적 투쟁을 하게 된다. 그 결과로 사회의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며, 마침내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지배권을 손에 넣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Marx는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이고 있다(Turn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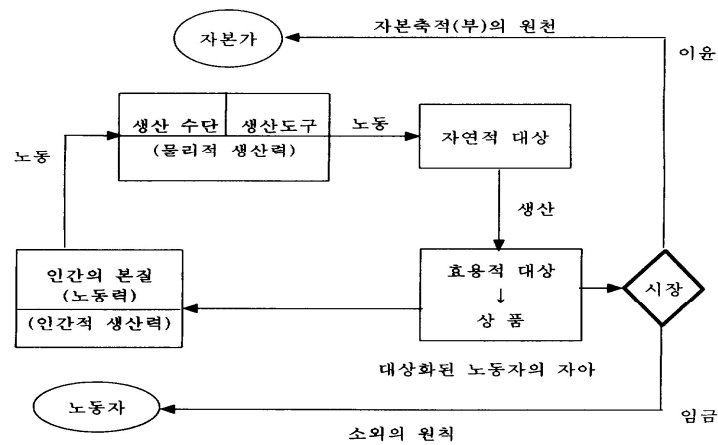
이처럼 계급간의 갈등과 투쟁에 초점을 두었던 Marx의 계급갈등론과는 달리 최근의 갈등이론에서는 자본 파벌간의 갈등, 다양한 사회계층, 종교 등의 집단사이의 갈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2) 인간 소외

인간은 노동력을 자연 대상에 투입하여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존을 이어가고 이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지만, Marx는 사유재산제, 분업체, 시장경제 및 화폐경제 등의 자본주의체제로 인하여 인간이 소외(alienation)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인간 소외는 인간이 지닌 본래적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인간이 사회적 관계, 노동 및 노동의 산물, 자아로부터 멀어지거나 분리된 듯한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때로는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물질이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Marx는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 과정과 구조를 다음의 [그림 25-1]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이태진, 2000).



[그림 25-1] Marx의 인간소외의 과정과 구조

인간 소외의 네 가지 차원은 ① 노동생산물이 노동자를 지배하게 되는 ‘노동생산물로부터의 노동자 소외’, ② 노동을 통해 자아를 충

죽여버리지 못하고 자아를 부정하게 되고,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 소진과 정신적 좌절을 경험하고, 자본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고 만다는 ‘노동 그 자체로부터의 노동자의 소외’, ③ 노동대상과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면서 대부분의 인간이 주체적 노동의 성격을 상실한 소외된 노동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의 고유한 본질적 기능을 빼앗기게 되는 ‘인간본성( 또는 유적 존재, 類的 存在)로부터의 노동자의 소외’, 그리고 ④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로 나뉘진다.

Marx는 사유재산 제도가 철폐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인간의 사회적 속성이 회복되고 인간 또한 해방되며,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도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인간 소외가 완벽하게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 3) 사회계층화와 카리스마적 리더십

Weber는 권력은 개인이 부동산, 동산, 자본, 사회적 존경, 물리적 힘 그리고 지식 수준 등과 같은 사회자원(social resources)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에서 유래된다고 본다. 이에 그는 사회자원에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본다.

Weber는 계층((stratum)을 재산, 권력 등 경제·정치·문화적 자원 중 하나 또는 복합 기준에 의해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일련의 기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열되어 있는 사회집단을 구분하는 것으로 본다. Weber는 계층 간의 불평등이 계급(class), 지위(status), 권력(power)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사회계층화이론(social stratification)을 제기하였다. 이때

Weber는 근대 사회의 위계구조는 계급(class), 지위(status), 권력(power)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강정한 외, 2013). 이 중에서 계급은 특정 경제 질서 안에서 부동산, 주택, 자산 등의 부(富, property)를 얻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의 양과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회지위에 대해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사회적 명성이나 명예, 위신(prestige)에 의하여 결정되며, 지위에 따라 사회적 기대 또한 달라진다. 권력은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력의 배분질서도 하나의 위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이 세 가지를 사회계층화의 3P(property, prestige, power)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합리적이고 법적 권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될 수도 있지만,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도 있다. 만약 누구에게는 많은 분배상의 특권을 주고 누구에게는 거의 주지 않는 불합리한 분배체계 하에서는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엘리트 집단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엘리트 집단이 되면, 권력, 사회적 위신, 경제적 부를 더 많이 배분받는다. 반면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은 기존의 배분체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서 갈등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계급, 사회적 위신, 경제적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사회계층의 상향 이동의 기회가 제한되게 되면 분노는 축적되고, 지배계층에 저항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charismatic leadership)가 나타나

게 되면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고, 지배계층의 자원 독점과 피지배계층의 자원 접근 기회 상실로 인한 발생한 분노를 조직화하게 되면 갈등과 사회구조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Turner, 2019). 그러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피지배계층의 갈등을 동원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규칙과 행정체계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일상화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고 새로운 형태의 권위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지배계층이 자원을 독점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피지배계층의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게 되면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반대로 새로운 규칙과 행정체계가 합리적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일상화되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 4) 권위의 차이

Dahrendorf는 구조기능주의이론의 보수성과 고전적 갈등이론의 급진성을 동시에 극복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그는 사회는 합의와 갈등 두 가지 모두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갈등 없이는 합의가 없고 합의 없이는 갈등도 없으며, 갈등이 합의를 유발하고 또 합의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는 변증법적 갈등이론을 제시했다.

Marx가 사유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계급이 형성된다고 본 반면 Dahrendorf는 권위(authority)의 차이에 의해 계급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권위(authority)는 지위와 역할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위계구조의 차이이다. 이러한 권위는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가 특정 지위와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승인하는 권위가 있으므로 권위는 사회가 창조해내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회체계에서는 특정 지위와 역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진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심지어 그러한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권위 있는 지위를 차지한 사람은 권위가 낮은 아랫사람을 정당하게 통제하게 되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권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집단, 조직,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전체 사회 내에는 일련의 지위와 역할이 다른 지위와 역할에게 동조와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적 역할과 종속적 역할로 구분되는 이원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강제 조정된 결사체(imperatively coordinated association)’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강제 조정된 결사체 내에서 권위관계가 창출됨으로써 지배집단(command class)과 피지배집단(obey class)이 형성된다. 지배집단이 다른 집단을 강제로 복종시킴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갈등의 잠재력 또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Turner, 2019; 강정한 외, 2013). 같은 결사체 내부에서는 특정 역할과 관련된 권위는 희소자원이 되기 때문에, 지배-피지배의 권위적 관계로 맺어진 집단들 사이에서는 이 희소자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결사체 내의 피지배집단이 권위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인식하게 되면,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에 더 높은 권위를 유지하거나 차지하려는 권위의 재분배를 둘러싼 이해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사체내의 권위를 둘러싼 갈등은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는 변동하고 발전하게 된다.

## 5) 사회갈등의 기능

Coser의 기능적 갈등이론(conflict functionalism)은 구조기능주의이론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Dahrendorf의 변증법적 갈등이론은 갈등이 사회유지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강정한 외, 2013). Coser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집단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진다고 보는 갈등의 통합기능과 적응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Coser는 사회체계는 상호관련성을 지닌 부분들의 체계이며, 이들 부분사이에서 희소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불균형과 긴장 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의 부분들 사이 그리고 부분요소 안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체계의 통합과 적응을 유지하거나 변동시키고, 증감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 특정 조건에서는 일탈과 갈등과 같은 전형적인 체계 파괴적 과정이 다른 조건에서는 체계의 적응과 통합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강정한 외, 2013).

Coser의 갈등의 원인과 강도, 지속성, 기능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Ritzer, 2016; Turner, 2019; 강정한, 2013). 먼저 갈등의 근본 원인이 기존 분배체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피지배집단이 희소자원의 기존 배분체계가 갖는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고조되면 갈등이 유발되는데, 절대적 박탈감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때 지배집단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

갈등의 강도와 관련된 Coser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갈등의 강도는 사회성원이 갈등에 감정적으로 몰입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특히 갈등세력간의 관계가 1차적 관계일수록 2차적 관계일 때 보다 감정적 몰입이 더 강하며, 갈등 역시 더 강하게 표현된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초월하여 갈등이 객관화될수록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일될수록 갈등은 더욱 강력해진다. 또한 집단이 자신의 실질적 이익문제(realistic



issue)와 관련하여 갈등하는 경우에 갈등은 더 폭력적이 된다. 즉, 실질적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에는 타협을 추구하는 반면 비실질적이고 추상적인 쟁점에 관해서 갈등할수록 감정적 몰입이 커지게 되어 갈등이 강하게 나타나며 더욱 폭력화된다. 사회구조가 경직될수록 갈등을 흡수할 제도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갈등은 더 폭력적으로 된다.

갈등의 지속성과 관련된 Coser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갈등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갈등의 목표에 대한 합의 정도가 낮을수록, 승패 여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수록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된다. 갈등이 강렬하고, 성원간 관계가 1차적일수록 갈등집단내의 비동조자와 일탈자는 더욱 억압받게 되고, 강요에 의해 규범과 가치에 대해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리더십 역시 갈등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도자가 목표의 완전한 달성이 불가능함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 추종자들로 하여금 갈등을 종식하도록 설득함으로써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Coser는 갈등의 기능을 갈등 당사자 수준과 사회 전체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갈등 당사자와 관련된 갈등의 기능을 살펴보면, 사회갈등을 통하여 갈등 당사자 간에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며, 갈등당사자 집단 내에 집중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고, 갈등 당사자 집단 내부에 구조적이고 이념적인 연대가 강화되고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며,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일탈하는 경우에 대한 억압체계가 형성되며, 집단 내부의 동조현상이 강화된다.

사회 전체에 대해 갖는 갈등의 기능을 살펴보면, 사회체계 단위의 혁신과 창조성이 증가하며, 체계간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전에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갈등이 일어나도 규범적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해

지며, 실질적 문제(realistic issue)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사회체계 단위 간에 결사체적 연합의 수가 증가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갈등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 명확한 권위체계 형성, 기능적인 상호의존성, 규범적 통제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처럼 Coser는 사회갈등이 갈등 당사자와 사회 체계 전반에 걸쳐 사회적 불만족을 차단하고, 사회해체의 원인을 제거하여 사회구조를 재조정하고 안정화시키는 사회통합의 기능과 적응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

갈등이론은 사회 안정을 설명하는 데는 취약점이 있지만,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강점이 있는 이론이다. 갈등이론은 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재화와 권력 등의 자원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 투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사회의 지배집단은 높은 권력, 자원, 경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집단을 억압하고 강제한다. 더 나아가 지배집단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 나가므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사회변화는 지배계급의 자원과 권력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변화에 불과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 전체의 변혁 즉, 진정한 의미의 사회변화는 아니다.

지배집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피지배계급도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피지배집단이 불공평한 사회구조를 인식하여 계급의식이 높아지고, 지배집단에 대항할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지배집단에 도전하고 저

항하는 사회행동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지은구 외, 2015). 다시 말해, 사회적 억압과 착취에 대한 자각을 한 개개인이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하고 그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갈등이론에서는 사회는 무질서와 변동, 불평등과 불공평, 갈등과 대립이 늘 존재하는 곳으로 보며,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지만 동시에 사회발전과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박정호, 여진주, 2008). 그 이유는 갈등은 사회 안에 실재하는 관계의 근본적 변형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생성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은구 외, 2015).

Dahrendorf는 사회를 희소한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장으로 보고, 사회문제가 사회구조와 제도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제도를 재구성하거나 재조직화하거나 이해집단간의 변증법적 갈등과정을 통해 사회갈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Coser는 희소자원을 둘러싼 집단간의 경쟁이 갈등을 야기하지만, 갈등이 오히려 집단간의 관계를 조장하고 상호적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이철우, 2017a). 그는 갈등이 집단의 결속을 도모하고, 고립된 개인이나 집단의 동맹관계 형성의 동기를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통합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 4.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의 적용

##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갈등이론에서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모순에 있다고 본다. 사회구조 전체의 모순과 이로 인한 계급간의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사회문제는 불합리한 사회통제와 착취, 희소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한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의 권력과 구조에 기인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지배집단 또는 자본가계급이 경제적 잉여물을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확대시켜 나간다. 다시 말해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이 자신들이 통제되고 억압되며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착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곤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않거나 피지배집단이 빈곤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빈곤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만들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이철우, 2017a). 그러므로 피지배집단이 불평등한 분배를 유발하는 사회의 권력구조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사회성원의 관심을 끄는 사회문제가 되지 못하며, 피지배집단이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Marx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에 의지하여 생존해야 하는 노동자가 생산수단과 생산물, 노동과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고, 개인 이익을 중시함에 따라 인간과의 연대가 약화됨에 따라 인간의 삶에 고통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지은구 외, 2015).

Dahrendorf의 변증법적 갈등주의이론에서는 사회자원이나 권력의 희소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즉, 사회의 희소한 권력과 자원을 둘러싸고 이해집단간에 대립과 갈등이 야기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권력집단이 그것의 해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본다.

갈등이론에서 개인의 사회적 일탈행동(social deviant behavior)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가에 따라 그 개념 규정방식이 달라진다고 본다. 자원과 권력을 많이 소유한 지배집단의 성원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실수 또는 비의도적 행동으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피지배집단의 성원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개인의 부도덕성의 문제, 비의도성을 가장한 의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매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과, 고위층 자녀의 범법행위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 등에서 갈등이론에서 사회적 일탈행위가 규정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2)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대한 함의

갈등주의에서는 사회현실을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계급, 이익집단간의 투쟁의 장으로 보며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집단간의 갈등과 투쟁, 억압과 착취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이론은 사회문제이나 일탈행위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조건에 두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해결하는데서 찾는다. 그러므로 갈등이론은 대안적이고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도록 해줌으로써,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서 사회현상에 대해 비전통적이고, 개혁적이고, 창의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갈등이론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오는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자본주의체계의 폐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계급투쟁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을 위해 지출되는 부담금은 이윤 즉, 잉여가치를 소모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본가들은 스스로 잉여가치를 노동자들을 위해 잉여가치를 양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자본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노동자계급이 성장하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계급의 욕구가 바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가계급의 욕구를 국가가 받아들이는 과정과 노동자의 계급투쟁이 함께 작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도 노동자의 요구라는 측면과 자본가의 요구라는 측면이 결합된 결과물이다(김영모, 1991).

갈등이론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에 형성된 기존의 권력관계에 피지배집단이 대립각을 세우는 대항전략과 같은 급진적 전략을 사용(지은구 외, 2015)하여, 계급 없는 사회를 창출하여 불평등을 제거하고, 노동이 인간소외를 창출하지 않도록 하며,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등이 있다(박용순 외, 2019). 다시 말하면 사회제도의 재조직화를 통해 자원의 소유와 통제를 통일화시키는 것을 보장하며, 생산수단의 공유, 자유시장 경제체계의 폐지, 세제 개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의 원인을 불평등, 착취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의 철폐와 같은 강력한 국가중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도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김대원 외, 2010).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Marx는 극단적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 다시 말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자원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Marx와 달리 신갈등주의이론에서는 합의, 협상, 권력행사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Dahrendorf의 변증법적 갈등이론에서는 사회자원이나 권력의 희소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회제도를 재구성 또는 재조직화하거나,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재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세금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나 입법, 정책 등의 조정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이철우, 2017a)

Coser는 사회의 희소자원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오히려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상호적응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불평등한 분배를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개혁이나 개선, 보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이철우, 2017a; 이철우, 2017b).

노인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갈등이론의 관점은 복지급여를 확대할 경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에서는 노인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자원배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지만, 노인 집단 스스로가 자신들이 지닌 집단적 힘을 인식하고, 이런 세력의 행사를 통하여

복지급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실천가능성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자발적 복지참여 행동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갈등이론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사회통제의 기제로 이해하기도 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내부 모순을 상쇄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 바라보기도 한다. 갈등주의이론에서는 국가가 자본주의의 모순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불만과 희생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한다고 본다(이철우, 2017a).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체제의 경제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계급간의 격차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체도를 영속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이철우, 2017b).

사회복지실천에서도 갈등이론의 관점을 따르는 접근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갈등이론의 관점을 따른 사회복지실천가 특히 급진적 사회복지사(radical social worker)를 포함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가(critical social worker)는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에 관심을 두고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려 했다([en.wikipedia.org/wiki/](http://en.wikipedia.org/wiki/)). 비판적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복지국가 사상이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모든 종류의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 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인과관계 즉, 직선적 원인론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인간과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변증법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문제를 사정하였다. 이들 비판적 사회복지실천가들은 ① 빈곤, 실업 및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② 인종, 장애, 연령, 성과 관련 된 사회적 차별, ③ 부적절한 주택, 건강, 교육, 노동 기회의 문제, ④ 범죄와 사회불안, ⑤ 학대와 착취, ⑥ 불안정고용, 푸드뱅크 등의 비인간적 신자유주의의 영향 등의 주제와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

1. 사회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사이의 갈등의 장(arena)이라고 보는 갈등이론을 구조기능주의이론에 근거하여 비판해보시오.
2. 귀하는 부르주아, 뽀띠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또는 룸펜 중에서 어느 계급의 속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3. 우리 사회의 가장 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료들과 토론해보시오.
4. 가족이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인간 소외 경험과 그 이유를 Marx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시오.
5.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6. 권력 또는 경제력,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시오.
7. 귀하가 소속된 조직을 Dahrendorf의 ‘강제 조정된 결사체 (imperatively coordinated associa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시오.

8. 사회갈등이 사회의 통합과 적응기능을 향상시킨다는 Coser의 기능적 갈등이론을 비판해보시오.
9. 갈등이론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비판해 보시오.
10. 급진적 또는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도서나 논문을 읽고 그들의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에 대해 동료들과 토론해 보시오.